



## “뚱뚱뚱~ 두뚱뚱뚱” 법고 소리 불국토 이뤄...

제1회 태고종법고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진관 스님.

### ■ 대상 수상 진관 스님 인터뷰



“복을 친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육천법음대학을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것이 오늘 이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1회 법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진관 스님(육천법음대 각배반 2년)은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조석예불을 모시면서 매일 법고를 치고 있다는 스님은 “앞으로 영산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전통 불교문화를 계승하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뚱뚱뚱~ 두뚱뚱뚱”

10월 17일 오전 11시 태고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1층 법당에서 예불시간도 아닌데 때 아닌 법고 소리가 요란하다. 전승관 개관기념으로 태고종 총무원이 마련한 ‘제1회 법고 경연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답장을 넘어 울려 퍼진 장엄한 법고 소리는 총무원이 위치한 시간동 일대를 법향 가득한 불국토로 만들어 주었다.

경연대회장에 들어서자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별 지역예선을 거친 경연자 60여명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객석에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참가자가 엄숙히 법고를 치는가하면 때로는 신명나게 법고춤을 추기도 한다.

이날 법고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예선을 치른 후, 오후 2시부터 자리를 3층 대법당으로 옮겨 본선 경연이 펼쳐졌다.

특히 5분 정도의 시연으로 치러진 예선은 정말 치열했다. 박정선(17양과 진관 스님(육천법음대 2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법고를 쳤다. 법고 소리만 들릴 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를 객석에서 지켜본 김양순(65)보살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리 빨리 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또 응원차 온 보경 스님(대구 용연사)은 “스님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과 일반 불자들이 너무 장엄하게 법고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즐거워했다.

경연장안 열기도 뜨거웠지만 밖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그동안의 연습을 총 점검하는 라 사듯 진지한 표정으로 리허설을 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1시간 30분 동안의 예선 끝에 본선 진출자 17명이 가려졌다. 3대 1의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인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강종강총 휘면서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선전이 진행되는 동안 전승관 밖 경복궁 거리에서는 일반시민과 외국인도 대상으로 법고를 쳐보는 체험 기회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본선경연은 3층 대법당에서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윤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문화 즉 불교문화가 세계 속에서 차별화된 한국을 나타낼 수 있다”며 “법고경연대회의 좋은 인연으로 불교의식을 오롯이 보존하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불교의식을 전수하는 좋은 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남상일(국립창극단 단원)씨의 사회로 2시간 동안 펼쳐진 본선 경연은 참가자나 관객 모두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참가자의 묘기가 간간히 나올 때마다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장 환우 스님(재정부원장)은 “참가자들의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출사위와 복의 장단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는 점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한 층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오후 5시 환우 스님을 비롯해 도암 스님(교무부장), 법경 스님(교임부장), 무공 스님(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봉 스님(경기중부총무원장)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끝에 드디어 심사결과가 발표했다.

대상은 빠르고 힘찬 북소리를 들려준 진관 스님이, 금상은 무공 스님, 법수 스님, 박정선씨가 은상은 우영욱, 심수경, 정희선씨가 동상은 준범 스님, 법연 스님, 오명우, 장수정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은 장윤실, 김태림, 변정인씨에게 돌아갔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장 및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됐다. 종정예하가 수여하는 대상을 2회 이상 받게 되는 수상자에게는 법고의 명인자격을 부여한다.

이 대회를 총 진행한 능화 스님(문화부장)은 “법고대회는 실력을 가늠하는 자리가 아닌 중도들과 전 불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향후 정례화 된 행사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10월에 일반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게 경복궁 마당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고는 중생의 번뇌를 물리치고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어리석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게 하는 힘도 있다. 이날 약 7시간 동안 시간동에 울려 퍼진 법고 소리는 어리석은 우리네 중생들이 사는 시방세계를 깨우쳐 주기에 충분한 큰 울림이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3층 대법당에서 펼쳐진 본선.



법고대회를 총 진행하는 문화부장 능화 스님.



경연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



법고경연대회 관람에 몰두하고 있는 관객들.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참 생명의 모습을 니룰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써 밝고 환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http://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묘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